

Part 2 — 시장을 읽는 눈

원화가치 몰락에 따른 대응 방법 — Part 2 마지막 회차의 정밀 풀이

· 정리 2026-05-13

환율 1,469원, 1년 전에는 1,400원이 새 기준이었습니다. 다음 계단은 어디일까요?

Part 2-1강 금리 신호등 룰북, 2강 40년 저물가 시대 종언, 3강 달러 가치의 미래(골덴 평행이론). 4강은 원화 가치의 미래 — Part 2 시리즈의 마지막 회차이자 결론입니다.

강의의 출발점은 단순합니다 — 원화 가치는 선형으로 하락하지 않는다, 계단식으로 급락한다. 일정 기간 안정 후 응축된 에너지가 한순간 폭발하는 패턴. 1,400원대를 새로운 기준으로 받아들일 때쯤, 다시 한번 갑작스럽게 급등합니다.

회차는 일본 사례에 비추어 한국 현재 상황을 진단합니다. 한국 2022년 = 일본 2012년의 평행이론. 정책 4축·인구·30년물 추월·기초 체력 모두 일치. 3단계 진입 신호 3종을 매월 면밀 관찰하고, Dirty Shirt + 양동 작전으로 분산하라는 결론을 18장으로 풀어냅니다.

1,469원

2026년 5월 USD/KRW. 1년 전 1,400원이 '새로운 기준'이 되어버린 시점 — 강의가 짚은 계단식 응축의 다음 단계

일본은 9년 걸려 80엔에서 156엔으로 두 배 약해졌습니다. 한국은 5년 안에 끝낼 위험에 있다 — 강의의 진단입니다.

안이 닛폰 — 일본의 자괴감이 우리에게 던지는 경고

혹시 이런 의문 드신 적 없으신가요? '일본 가니 헤어드라이기가 5천원밖에 안 한다는데, 일본 좋은 거 아닌가?' 강의의 첫 답은 정반대입니다 — 그건 가성비가 아니라 **국가적 빈곤**입니다.

일본 만화·도서 「**安いニッポン**(안이 닛폰)」이 화제가 된 이유는 일본 사회 스스로의 자괴감입니다. '닛폰'은 일본을 자랑스럽게 칭할 때 쓰는 표현인데, 거기에 '값싸다'는 의미의 '야스이'를 결합한 것 — 자국 통화의 가치가 하락하여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현실을 부끄러워하는 표현입니다.

일본 대졸 초임은 스위스의 3분의 1, 한국의 70% 수준입니다. 해외에 3만 원인 런치 세트가 일본에서는 5천 원에 불과합니다. 외국인이 '저렴해서 좋다'고 감탄할 때마다 일본인은 '어쩌다 이렇게 가난해졌나' 자문합니다.

이러한 일본의 과거는 결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이 처한 여러 경제 환경을 고려할 때, 우리가 일본이 걸어온 길을 따라갈 가능성이 큼니다. 그래서 강의는 일본 사례 위에 한국의 **평행이론**을 풀어냅니다.

일본 가발 시대 — 록펠러·반고흐를 산 슈퍼 엔화

강의가 짙은 일본 버블 시대(バブル時代)의 흔적은 충격적입니다. 미쓰비시가 록펠러 센터를 8.4억\$ (1조 2천억 원)에 매입하자 미국 언론은 '제2의 진주만 공습'이라 칭했습니다. 야스다 상사는 반고흐 해바라기를 3,990만\$ (580억 원)에 사서 당시 미술품 경매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기업뿐 아니라 일반 시민도 풍요로웠습니다. 만엔(10만원)을 흔들지 않으면 택시가 잡히지 않았고, 기업들은 면접 한 번에 10만엔(100만원) 용돈을 지급했습니다. 1990년대 한국 대기업 면접도 30만원 용돈을 지급하던 유사한 시기를 거쳤지만, 일본의 규모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강의는 이 시기를 일본 스스로 '가발 시대'라 부른 점을 짚습니다. 17세기 네덜란드의 '가발 시대 (Pruikentijd)'와 유사한 — 강한 통화로 흥청망청 소비하다 결국 몰락의 길로 들어간 평행이론입니다. 다음 카드에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힘, 슈퍼 엔화의 환율 그래프를 봅니다.

일본 버블 시대 — 슈퍼 엔화가 만든 흥청망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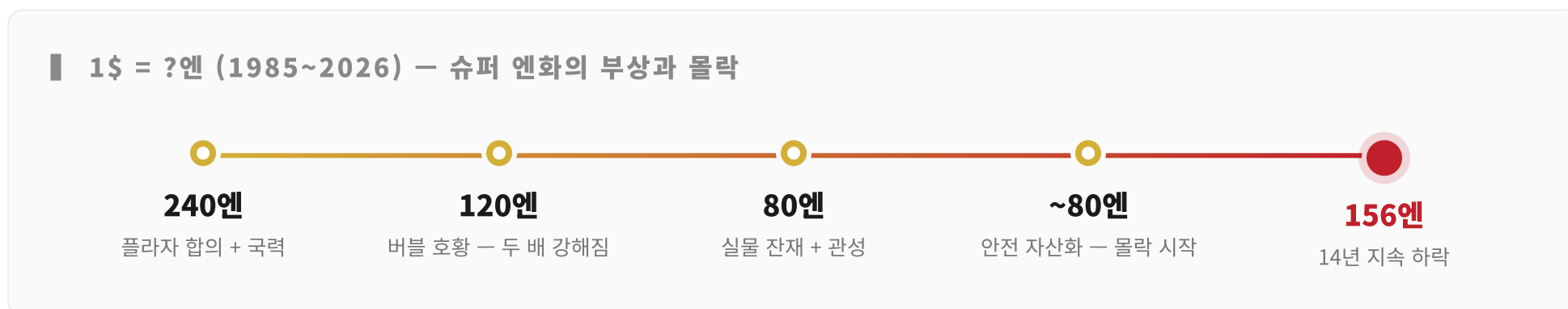
사건	내용
미쓰비시 록펠러 센터	8.4억\$ (1조 2천억 원) — '제2의 진주만 공습'
야스다 상사 반고흐 해바라기	3,990만\$ (580억 원) — 당시 미술품 역대 최고가
택시 잡기	1만엔(10만원) 흔들기
면접 참가비	10만엔(100만원) 용돈

슈퍼 엔화 그래프 — 240엔에서 156엔까지 14년의 몰락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힘이 슈퍼 엔화입니다. 1985년 플라자 합의 이전 1달러는 240엔이었습니다. 일본의 막강한 국력과 합의가 결합되면서 환율은 1987년 120엔까지 떨어졌습니다 — 엔 가치가 두 배 강해진 것입니다.

우리로 치면 1달러 1,400원이 갑자기 700원이 된 것과 같은 변화가 2년 만에 일어났습니다. 1995년에는 80엔까지, 그리고 2012년까지 80엔대가 유지됐습니다. 글로벌 금융 위기 시 엔화는 안전 자산으로 인식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12년 아베노믹스를 기점으로 엔화는 다시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강의 녹화 시점 환율은 156엔**. 우리로 치면 1,400원이 2,800원이 된 것과 같습니다. 일본인들은 지난 14년간 이 박탈감을 살아왔습니다.



일본 2012 ↔ 한국 2022 — 정책 4축 평행이론

엔화 14년 하락의 3가지 이유는 (1) 대규모 양적완화 (2) 초저금리 장기화 (3) 재정책대로 국가부채 폭증. 강의는 한국 2022년이 일본 2012년과 정책 4축에서 거의 동일하다고 진단합니다.

한국은행이 M2 증가에 대해 GDP 대비 비율을 언급하며 해명하지만, 강의는 '핵심 빛나감'이라고 평합니다. **경제 성장률보다 M2 증가율이 소폭 높은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2022년부터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음에도 M2가 계속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일본은 G2로 제로 금리를 감당했지만, **G10인 한국이 유지하는 저금리는 사실상 일본의 제로 금리와 비슷한 부담입니다.** 여기에 2022~2024년 세수 결손 + 확장 재정 기조까지 더해지면 일본과 같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 강의의 핵심 진단입니다.

일본 2012 vs 한국 2022 — 정책 4축

일본 2012년	한국 2022년
대규모 양적 완화	저성장인데 M2 증가
초저금리 장기화	한국의 저금리 정책
재정책대로 국가부채 폭증	세수펄크 > 확장재정

인구 평행이론 — 출산율 한국 0.75 vs 일본 1.3, 이중고

표면적 정책뿐 아니라 근본 원인도 같습니다. 한국 2025년 인구 피라미드는 일본 2007년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14년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한국이 더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일본은 G2였지만 한국은 G10. 일본이 겪었던 충격을 우리가 더 강하게 받을 가능성이 있고, 더 약하게 겪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출산율 비교는 한층 충격적입니다 — 일본 2007~2008년 1.3명 → 최근 1.1명. 한국은 단숨에 0.75명까지 떨어졌다가 소폭 회복한 수치가 0.8명. G10이면서 인구 구조는 일본보다 더 취약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통화 가치 박살의 메커니즘은 두 축입니다 — (1) 성장 잠재력 추락 (소비만 하는 고령 인구 ↑ → 무역 흑자 ↓) (2) 부양비 폭증과 재정 적자 (세금 낼 사람 ↓ + 복지 받을 사람 ↑ → 중앙은행이 국채 떠받침).

합계 출산율 — 한국이 더 취약

국가·시점	출산율
일본 2007~2008	1.3명
일본 최근	1.1명
한국 (단숨에 하락)	0.75명
한국 (소폭 회복)	0.8명

저금리의 함정 3단계 — 한국은 1+2 동시 진행 중

강의는 저금리 정책이 통화 가치를 무너뜨리는 과정을 3단계로 정리합니다. 경제 활력이 떨어지면 인위적으로 금리를 낮추고, 동시에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면 자금이 마땅한 투자처를 못 찾아 시장 금리도 자연 하락합니다.

초기에는 국내 자산 가격이 폭등합니다 — 강의는 '최근 코스피와 부동산 가격 상승이 그 모습'이라고 진단합니다. 가격이 한계에 도달하면 자금이 해외로 빠지며 2단계 자본 유출이 진행됩니다.

3단계의 동력은 시중 저축 총량의 급격한 감소입니다 (퀴즈 5번 정수). 고령화 마지막 단계에서 저축이 줄고 소비가 늘면, 시장 자체가 더 이상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지 못합니다. 중앙은행 정책과 무관하게 시장 금리가 발작적으로 튀어오릅니다. 강의는 '한 번 진입하면 쉽게 되돌리기 어려운 단계'라고 명시합니다.

■ 저금리의 함정 3단계

건국 이래 처음 — 일본 30년물이 한국을 추월했습니다

올해 1월, **일본 30년물 국채 금리(3.63%)가 한국(3.59%)을 추월했습니다**. 2월 들어 다시 한국이 소폭 위로 올라왔지만, 1월의 추월 사실은 언론에 대서특필됐습니다 —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일본이 이미 고령화의 마지막 단계인 3단계에 진입했다는 신호입니다. 고령화 사회의 끝에는 저금리가 아닌 고금리가 찾아옵니다. 저축을 하는 젊은 세대는 줄어들고, 평생 모아둔 자산을 인출하는 고령층이 늘면서 시중의 저축 총량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외부 데이터로도 검증됩니다. 2026-05-06 기준 **한국 30년물은 3.844%로 2.5년 최고치**를 기록했고, 미국 30년물은 5.025%, 영국은 5.742%로 강의의 5% 위기 임계를 글로벌 채권 시장이 이미 돌파한 상태입니다.

■ 일본 vs 한국 30년물 — 1월의 역전

기초 체력의 결정적 차이 — 4조\$ 해외 자산 vs 75% 부동산

한국과 일본의 평행이론에는 한 가지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 **기초 체력**. 일본은 30년 엔고 시대를 거치며 막대한 해외 자산을 축적했습니다.

일본 순외채권은 4조 달러, 우리 돈으로 6천조 원에 달합니다. 일본이 2012년 아베노믹스 이후 14년간 막대한 돈을 풀어도 경제가 버틸 수 있었던 핵심 이유 — 천문학적 해외 자산에서 나오는 자본 이득이 경제를 지탱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정반대입니다. **전체 가구 순자산 중 75%가 부동산**입니다. 대부분의 자산이 국내 시장에 묶여 있는 '로컬 자산'이고, 부동산은 수출 불가능한 내수 자산입니다. 부동산이 하락하면 한국 국민 자산은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외부 충격에 대응하기 어려운 자산 구조가 일본보다 한국이 불리한 핵심 요인입니다.

■ 기초 체력 비교 — 일본 vs 한국

일본	한국
순외채권 4조\$ (6천조 원)	부동산 비중 75% (가구 순자산)
30년 엔고 시대 누적 자산	해외 자산 축적 시간 부족
자본 이득으로 경제 지탱	외부 충격 대응 어려움

은마 아파트로 본 진실 — 금으로 환산하면 1/3 토막

강의가 짙은 한 가지 직관적 검산이 있습니다 — '은마 아파트값은 오른 걸까, 떨어진 걸까?'

원화로는 2005년 7.5억 원에서 2025년 37억 원까지 약 5배 올랐습니다. 하지만 같은 자산을 금으로 환산하면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2005년 금 40kg → 2015년 25kg → **2025년 15kg**. 금 기준으로 평가하면 은마 아파트의 실질 가치는 1/3 토막이 났습니다.

2005년이 분기점입니다. 그때부터 한국 성장 둔화 → 유동성 공급으로 성장률 유지 방식으로 전환됐습니다. 원화 명목 상승이 실질 가치 하락을 가린 것입니다 — 화폐의 시간 단위 차이(금/은 6,000년 vs 달러 170년 vs 원화 64년)에서 비롯된 안전성의 위계입니다.

■ 은마 아파트 vs 금 1kg — 금 환산 가치 추락

년도 아파트 = ?kg 금	은마 아파트	금 1kg
2005 40kg	7.5억	1,860만
2015 25kg	12억	4,800만
2025 15kg	37억	2.4억

위험 신호 [1] — 회사채 동맥경화 (Credit Crunch)

그렇다면 3단계 진입을 알리는 구체적 신호는 무엇일까요? 강의는 매월 면밀 관찰할 3종을 정리합니다. 강의는 '아직 3단계는 시작되지 않았으므로 지나치게 겁먹을 필요는 없지만, 이를 인지하고 있어야 올바른 투자 원칙을 세울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첫 번째 신호는 '**회사채 동맥경화**' — 우량 기업(예: 한전, 대기업 계열사)이 발행한 채권이 시장에서 소화되지 못하고 '**유찰**'되는 **발작적 현상**입니다 (퀴즈 7번 정수). 우량 채권조차 시장에서 외면받는다는 것은 시장의 신뢰 자체가 흔들린다는 신호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한 번 경험했습니다. **2022년 말 레고랜드 사태** 당시 정부와 한국은행이 막대한 유동성으로 간신히 막았습니다. 그러나 그 부작용이 바로 **부동산 버블**이었습니다 — 구조조정 대신 유동성 공급을 택한 결과입니다. 부동산을 못 사서 박탈감을 느낀다면, 강의는 '개인 잘못이 아니라 정책의 결과물'이라고 짚습니다. 당시 건전한 구조조정을 선택했다면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경제 체질이 개선되었을 것이지만, 우리나라는 부양책으로 자산 가격만 폭등하고 경제 체질 개선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 팽창적 통화·확장적 재정 정책이 **2026년까지 5년 연속 이어진다면, 2027년 이후 원화 불신 팽배 → 달러 갈아타기 폭발** 시나리오를 강의는 경고합니다. 막대한 유동성 공급에도 불구하고 자금이 계속 해외로 유출된다면 예전처럼 쉽게 막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때 우량 채권이 다시 유찰되면 그것이 위험 신호입니다. 다음 카드에서 두 번째 신호인 Bond Vigilantes — 국채 금리의 발작적 급등 임계를 봅니다.

위험 신호 [2] — Bond Vigilantes (10년물 4·4.5·5%)

두 번째 신호는 '국채 금리의 발작적 급등' — Bond Vigilantes(채권 자경단). 10년물 국채를 기준으로 4% 돌파는 경계 경보, 4.5%는 대피 신호, 5.0%는 위기 신호입니다.

올해 1월 한국 10년물이 작년 2.6%에서 갑자기 3.7%까지 치솟는 충격이 있었습니다. 원인은 엔 캐리 트레이드 자금 청산 — 엔 캐리 자금이 청산될 때 미국 같은 선진국보다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 시장에서 먼저 자금이 빠집니다. 다행히 일본 금리가 안정되면서 한국 금리도 강의 시점 3.4%로 소강상태입니다.

외부 데이터를 보면 강의 시점 후 빠르게 다시 상승했습니다. **2026-05-04 기준 한국 10년물은 3.91%** — 강의 시점 3.4%에서 3개월 만에 1차 경계 경보 4%를 거의 터치했습니다. 1년 전 대비 +1.31%p 상승. 이제는 3.8·3.9·4.0%를 면밀 관찰할 시점입니다.

■ 한국 10년물 신호등 — 강의 임계 vs 5월 시점

금리 임계	신호 단계	현재 위치
4% 돌파	경계 경보	5월 3.91% — 임박
4.5% 돌파	대피 신호	아직
5.0% 돌파	위기 신호	아직 (미·영은 30년물에서 돌파)

위험 신호 [3] — Death Spiral '이자 더 쥐도 싫다'

세 번째 신호는 가장 무서운 패턴 — '죽음의 나선(Death Spiral)'. 10년물 국채 금리가 3.8% 이상으로 상승하면서 환율도 동반 상승하는 현상입니다.

정상이라면 금리가 오르면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어 환율이 안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금리 상승과 환율 상승이 동시 발생한다면 — '이자 더 쥐도 싫다, 한국 탈출이 목표다' (퀴즈 8번 정수).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이 국가 부도 위기에 직면할 때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강의는 '아직 한국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최근 일본에서는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한국도 지속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외부 데이터 — 2026-05-05 USD/KRW는 1,469원, 한 주 전 1,454원에서 약세. 환율은 흔들리고 있으나 본격적 발작 형태는 아직 X.

Death Spiral — 정상 vs 비정상 신호

상황	패턴
정상 작동	금리 ↑ → 외국인 유입 → 환율 안정
비정상 (위기)	금리 ↑ + 환율 ↑ 동시 = 한국 탈출 목표

워렌 버핏 펀치 카드 — 신규 진입자에게 안전 마진은 없습니다

강의는 코스피 폭등을 즐기는 자세도 두 경우로 나눕니다. 이미 코스피에 투자한 분은 '안전 마진'을 확보하고 있어 일시적 조정에도 대응할 여력이 있습니다. 문제는 신규 진입자 — **안전 마진이 거의 없기 때문에, 급등하는 시장 끝자락에 올라섰다가 갑작스러운 하락을 맞으면 큰 손실로 손절매할 가능성이 큼니다.**

한국 국민의 코스피 참여 현황은 **15% 적극 / 27% 단순 보유 / 85% 미참여**. 85%의 미참여 그룹이 지금 진입을 고민하는 시점입니다.

강의는 워렌 버핏의 비유를 인용합니다 — '**투자는 인생에서 단 20번만 펀치 카드를 찍을 수 있는 기회와 같다**'. 펀치 카드를 찍어야 할 최적의 시점은 시장이 대폭락을 겪은 후 회복하는 순간입니다. 미국은 4년 주기 20% 폭락, 한국은 30~40% 하락이 함께 옵니다. 7~8년 주기로는 30% 이상 대폭락. **지금 같은 과열 상태에서 펀치 카드를 낭비할 필요는 없다**는 강의의 메시지입니다.

■ 한국 국민 코스피 참여 + 폭락 주기

지표	값
적극 투자	약 15%
단순 보유	27%
미참여	85%
미국 4년 주기 폭락	20% (한국 30~40%)
7~8년 주기 폭락	30% 이상

달러 환전 3단계 — 1,370 / 1,420 / 1,435원

강의가 짚은 환전 기준은 명확합니다. 2019년부터 강사가 일관되게 제시해온 원칙 — **3년 평균 환율 이하일 때 환전**. 2019년 3년 평균이 1,120원이었고, 환율이 1,060원까지 떨어졌을 때 적극적으로 환전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3년 평균은 1,37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가격까지 하락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므로, 최근에는 **1년 평균 이하 1,420원**을 새로운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보다 공격적으로는 **6개월 평균 이하 1,435원**.

전략 수정 원인은 환율의 계단식 상승 추세입니다. 한 단계 올라간 환율 위에 새로운 평균이 형성되는 패턴이 반복되면서, 기준 자체를 단계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외부 데이터 — 2026-05-05 USD/KRW는 **1,469원**. 강의의 공격적 매수 기준(1,435원) 위로 안정. 점진적 분할 환전 가능 구간입니다.

환전 3단계 기준 — 계단식 상승 추세 반영

전략 단계	매수 기준
과거 전략	3년 평균 이하 — 1,370원
최근 전략	1년 평균 이하 — 1,420원
공격적 전략	6개월 이하 — 1,435원

금 매수 — 불리온 बैं크 활용 + KRX 금시장 선호

금 투자는 환율처럼 특정 기간 평균값으로 기준을 삼기 어렵습니다. 환율은 중앙은행의 인위적 개입으로 균형점 회귀 경향이 있지만, 금은 **완전한 글로벌 자산이라 평균 전략이 통하지 않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수요·공급이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한 나라의 평균 환율 같은 기준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강의가 제안하는 전략은 '**불리온 बैं크 활용**'. 초대형 은행(불리온 बैं크)을 적으로 돌리면 위험합니다 — 그들의 먹잇감이 되시면 안 됩니다 (긴급 매크로 2편 참고). 이들은 금 시장의 가격을 흔들 능력을 가진 행위자이고, 일반 투자자가 그들과 같은 방향에서 거래하면 결국 휘둘립니다. 대신 **아군으로 만드는 전략**은 그들이 시장을 흔들 때(과격하 조정 시) 집중 매수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사례 — **2월 2일 조정 당시 금값은 1g 21만 원까지 떨어졌고, 강의 시점 23만 4천 원까지 회복했습니다.** 불리온 बैं크가 의도적으로 금값을 큰 폭으로 하락시킬 때가 바로 매수 기회로 활용 가능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조정은 평균 가격으로 추적하기 어려운 대신 시점 매수의 기회 신호로 작동합니다.

매수 방법은 강사의 선호로 — **KRX 금시장**. 금괴는 수수료와 부가가치세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KRX 금시장은 거래소를 통한 표준화된 거래라 비용 부담이 작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향후 원자재 편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으로 강의 결말부에 짚어 둡니다. 강의는 직접 구매보다 거래소 활용을 선호하는 강사의 일관된 입장을 보여줍니다. 다음 카드에서 회차의 마지막 결론 — Dirty Shirt 이론 + 양동 작전을 봅니다.

양동 작전 — 금(방패) + 은(창=악마의 금속)

회차의 마지막 결론은 **더러운 셔츠 이론(Dirty Shirt Theory)**입니다. 옷장에 여러 벌의 셔츠가 모두 더러운데, 그중에서 가장 덜 더러운 셔츠를 골라 입는 상황 — **달러가 바로 그 '덜 더러운 셔츠'**입니다. 원화·엔화는 곧 더 더러워집니다.

달러마저 더러워질 미래에 대비해 금을 함께 보유하는 것이 강의가 짚은 **'양동 작전'**입니다. 그리고 은을 약간 섞는 의미는 — **금 = 방어용 방패, 은 = 공격적인 창** (퀴즈 10번 정수). 은은 금보다 변동성이 크고 최근 산업용 수요 증가로 '에너지 화폐' 성격까지 띕니다.

그러나 강의는 경고합니다 — **은의 비중을 지나치게 높이면 위험합니다**. 은의 별명이 **'악마의 금속'**일 만큼 가격 변동성이 극심하기 때문입니다. **금을 주된 방패로, 은을 보조적인 창으로** 활용하는 양동 작전을 장기적 관점에서 실행하는 것이 강의의 권고입니다.

외부 데이터로 검증됩니다 — **은 가격은 2026년 1월 사상 최고치 ~\$100/oz 돌파 후 5월까지 -40% 조정**. 금/은 비율도 50:1 → 61~62:1로 변동. 강의의 '은의 높은 변동성' 명제가 4개월 만에 정확히 검증된 사례 후속입니다.

양동 작전 — 금 vs 은의 역할

자산	역할	특징
금	방어용 방패	안정 자산 / 5,000년 화폐
은	공격적인 창	변동성 ↑ / 에너지 화폐 / 별명 '악마의 금속'

Part 2-4강 마무리 — 변동성의 시대

본 회차의 핵심 메시지는 세 줄로 압축됩니다.

1 한국 2022 = 일본 2012 평행이론 — 정책 4축·인구·30년물 추월·기초 체력 모두 일치.

한국이 더 취약한 이종고. 일본 9년 흐름을 한국은 5년으로 압축할 위험.

2 3단계 진입 신호 3종 매월 면밀 관찰 — Credit Crunch(2022 레고랜드 패턴 / 2027

시나리오), Bond Vigilantes(10년물 4·4.5·5%, 5월 3.91% 임박), Death Spiral(아직 발생 X, 일본은 유사 현상 진행 중).

3 자산 분리 + 양동 작전 — 로컬(원화·한국 부동산 75%) vs 글로벌(달러·금·나스닥). 달러

환전 3단계(1,370/1,420/1,435) + 금 KRX 시장 + 양동 작전(금=방패 + 은=창=악마의 금속).

강의는 직접 매수·매도 권유를 강제하지 않습니다. 18장으로 풀어낸 평행이론과 매월 면밀 관찰할 신호 룰북, 그리고 자산 분산의 방향을 제시할 뿐입니다.

Part 2 「시장을 읽는 눈」 시리즈가 본 회차로 완결됩니다. 다음 Part 3 시리즈는 자산별 시장 분석으로 이어집니다.

극심한 변동성의 시대 — 기회의 사다리로 활용할 것인가, 추락의 위험을 겪을 것인가는 앞으로 얼마나 철저히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다.

다음 강

Part 3 시리즈 — 자산별 시장 분석

Part 2가 시장을 읽는 눈(금리·물가·달러·원화)을 다뤘다면, Part 3는 자산별로 들어갑니다.

본 정리는 박종훈의 지식한방 회차 강의 정리본 + Fanding 후속 객관식 퀴즈를 베이스로 외부 시장 데이터(WebSearch + WebFetch)로 4 패러다임 자료 보강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강사의 권고는 강의 본문 명시 내용의 부분집합이며, †N은 사실·정량 추가에만 사용. 투자 권유 X. 학습 목적.